

[특별기고]

자유학예교육의 기원과 본질 - 오늘날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배울 것인가?

박 병 철*

I.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는 그 핵심 구성원인 학자들마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관성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하다. 생존이라는 미명 아래 대학에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그것에 의해 평가되고 가치가 매겨지는 사이에 교수들은 은연중에 학교의 외형적 존립을 지탱하는 산업 노동자처럼 변해가고 있다. 외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외형과 내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알맹이 없는 외형은 결국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알맹이 있는 학교, 내실 있는 학문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일신, 일일신, 우일신”(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말이 나온다.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의 메시지를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나는 이것이 큰 배움을 뜻하는 ‘대학’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큰 배움을 주고받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사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몇몇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치고 박사 아닌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오늘날의 박사들

* 부산외대 교수, deltablues@naver.com

은 문자적 의미로 보면 박사(博士)라기보다는 협사(俠士)라는 말에 더 어울린다. 대부분의 박사들은 자기가 깊이 전공한 분야 외에는 잘 모른다. 철학이라는 학문 내에서도 영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유럽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럽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영미 철학을 잘 모른다. 영미 철학 내에서도 윤리학 전공자는 심리철학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크고, 심리철학 전공자는 예술철학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넓게’ 안다는 의미의 박사보다는 깊게 공부했는지언정 ‘좁게’ 안다는 의미의 협사가 더 적합한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대학』이 말하는 ‘새롭게 하라’는 뜻을 되새긴다면, 그것이 ‘배우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라 할 때, 그저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이미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접근하라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전문성이 중요한 오늘날에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변하고 학문의 내용 역시 변했으나 대학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인 요소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유럽에서 있었던 몇몇 지식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자유학예를 기초로 한 다양한 학문 간의 소통이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볼까 한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같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음의 에피소드들은 리버럴아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케임브리지 사도들(The Cambridge Apostles)은 1820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지 톰린슨에 의해 결성되었다. 정식 명칭은 케임브리지 집담회(the Cambridge Conversazione Society)였으며, 학부생들 중에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비밀 집단이었다. 이 비밀 토론 클럽이 ‘사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 창립 멤버의 수가 12명이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사도들은 주로 세인트 존스 칼리지, 킹스 칼리지, 그리고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선발되었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샌드위치 먹을 먹으면서 진행된 이 모임에서 정해진 발표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사도 출신 교수들이 학부 신입생을 후보로 지목하면 그 후보는 ‘태아’(embryo)라고 불렸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티 모임을 통해 기존 회원들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일단 선발되면 회원 자격은 평생 유지되었는데, 졸업생은 ‘천사’(angel)라고 불리었다. 입단식을 마친 태아에는 ‘탄생’(birth)이라는 표현이 붙여졌고, 신입 회원을 발굴한 교수에게는 ‘아버지’(father)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창립 후 첫 60년 동안 배출된 200명의 사도 중에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영국의 계관시인이 된 알프레드 테니슨(70번째 사도), 테니슨의 대표작인 “인 메모리엄”(In Memoriam)의 주인공인 시인 아서 할람(68번째 사도), 전자기장 이론을 확립한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128번째 사도), 공리주의 철학자 헨리 시즈윅(138번째 사도) 정도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1880년 이후부터는 매년 2명 정도의 사도들만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약 30여 년간은 사도 출신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으며 일부 사도들은 블룸스베리 그룹(the Bloomsbury Group)¹⁾의 모태가 되는 등 지식 사회에서

1) 블룸스베리 그룹은 20세기 초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일부 사도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런던의 블룸스베리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당대 문학, 미학, 비평, 페미니즘 등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알려지게 된 느슨한 의미의 문화 공동체였다. 케임브리지 사도들이었던 케인즈, 포스터, 스트레이치 형제, 로저 프라이, 레너드 울프 외에 버지니아 울프, 던컨 그랜트(화가), 바네사 벨(화가), 클라이브 벨(예술비평가) 등이 주요 멤버였다.

하나의 의미 있는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다.

수학자 화이트헤드(208번째 사도), 철학자 맥타가트(212), 화가 로저 프 라이(214),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224), 역사학자 조지 트레벨리언(230), 철학자 G. E. 무어(229), 소설가 E. M. 포스터(237), 작가 리튼 스트레이치(239), 정치이론가 레너드 울프(241),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243), 심리학자 제임스 스트레이치(245),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252) 등은 후에 각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도들이었는데,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이 모임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G. E. 무어였다.

무어는 1903년 『윤리학 원리』(*Principia Ethica*)를 출간했는데, 20세기 윤리학의 고전이 된 이 책은 그가 사도들의 토요일 토론 모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 모임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모임에서 토론의 전형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한편에는 이상적인 의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실질적인 선이 있다. 둘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퍼시 셸리의 시에는 부도덕한 경향성이 있는가?”, “우주의 현상으로부터 연역 가능한 제1원리가 있는가?”, “일반적 편의성을 넘어서는 도덕적 행동 규칙은 있는가?”

모임에 참여하는 사도들의 전공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척 다양했음을 감안하면, 위의 물음들이 일상적인 토론 주제였다는 것은 박사과정에서 협사들을 양산해내는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놀라운 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런 물음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사도들이 명망과 영향력을 지닌 소설가, 정치인, 관료, 법관, 언론인, 학자, 교육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학예 전통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이 훌륭한 인물이나 학자를 만들어내는 충분조건이 아니며, 다양한 학문의 폭넓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III.

케임브리지 사도들에는 대학원생과 교수들도 참여했지만, 기본적으로 학부생들의 토론 클럽이었다. 이제 자유학예적 소양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비엔나 서클(Der Wiener Kreis)은 공통의 관심사와 세계관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토론 모임이었다. 비엔나 서클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학회나 학파라기보다는 오늘날 ‘동아리’의 성격에 가깝다. 학자들의 학술 동아리였던 이 모임의 특징은 참여한 학자들의 전공이 무엇이든 구성원 모두가 과학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술릭(Moritz Schlick)이 1922년 빈 대학의 물리학 교수직에 초빙된다. 그러자 일군의 과학자와 수학자들로 구성된 토론 모임을 이끌던 사회경제학자 노이라트(Otto Neurath)가 술릭에게 과학과 철학에 대한 토론 그룹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술릭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비엔나 서클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의 권위자들이었는데 과학적 세계관과 논리적 분석을 통해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대표는 술릭이었지만, 모임의 실질적인 동인은 노이라트였으며, 철학자 카르납(Rudolf Carnap), 물리학자 프랑크(Philip Frank), 수학자 한(Hans Hahn), 철학자 파이글(Herbert Feigl), 수학자 멩거(Karl Menger), 역사학자 질셀(Edgar Zilsel), 수학자 괴델(Kurt Gödel) 등이 주요 멤버들이었다. 매주 목요일 빈 대학 부근의 커피하우스에서 토론 모임을 했던 이들은 1929년 이른바 ‘비엔나 서클 선언’(Vienna Circle Manifesto)²⁾을 발표하고 논리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로 알려지게 되는 사상적 운동을 펼치기에 이른다. 이 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비엔나 서클은 1929년 프라

2) 비엔나 서클 선언은 『과학적 세계관, 비엔나 서클』(Wissenschaftliche Weltauffassung. Der Wiener Kreis)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으로 발표되었다. Otto Neurath, *Empiricism and Sociology*, Dordrecht: Reidel, 1973.

하에서 국제 수학 학술대회와 물리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잇따라 그 정신에 동조하는 학자들과 제후를 맺는다.

이들은 물리학의 발전에 힘입어 경험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20세기에 새롭게 발전한 기호논리학의 방법을 채용하여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나치의 오스트리아 합병을 앞두고 신변과 자유로운 학문 활동에 위협을 느낀 멤버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로 이주하면서 비엔나(에서) 서클은 해체된다.³⁾ 후에 미국에 정착한 서클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통일과학 백과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이라는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 시리즈는 1938년부터 1969년까지 총 20권이 나왔으며, 지금은 과학의 합리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는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도 원래 1962년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출간되었다.

비엔나 서클은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을 진정한 의미의 지식으로 인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편협한 과학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다는 비난을 종종 받아왔다. 그러나 비엔나 서클의 구성원들은 결코 ‘과학만 아는’ 편협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학을 도구로 하여 사회변혁을 이끌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회 운동가였으며, 예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학술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세부 전공 영역에 몰입되어 다른 학문 분야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오늘의 과학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존재들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빈의 커피하우스 토론 모임에서 시작한 비엔나 서클은

3) Cf. Donald Fleming and Bernard Bailly eds. *The Intellectual Migration: Europe and America, 1930~196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이 책은 비엔나 서클 뿐 아니라 1930년대부터 시작된 다양한 분야의 유럽 학자들의 미국 이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 학문 세계를 미국이 주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상황 지워진 정치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노이랏트는 사회 정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고 보았다.⁴⁾ 이때 그는 과학적인 세계관을 모델로 하여 합리성을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과학적 세계관과 사회적 선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⁵⁾ 그는 과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사회변혁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는 많은 면에서 플라톤의 이상과 관련지어 이해될 수 있는데, 그의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과학 정신을 계승하여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는 이성이 가져다 준 최고의 학문이라고 여겨진 과학이었다.

그러한 비엔나 서클의 생각은 당시 유럽 예술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카르납을 비롯한 서클 멤버들은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세운 바우하우스(Bauhaus)와 교류했는데, 1929년에는 카르납이 데사우의 바우하우스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바실리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를 만나는데, 특히 바우하우스에서 구성주의적 교육과정을 이끌면서 기하학적 추상미술을 추구했던 칸딘스키의 이상과 카르납의 아이디어는 궁합이 잘 맞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기하학적 단순화를 통해서 세계를 표현하려는 칸딘스키의 생각은 회화에서 형태를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를 구현하려는 시도였고, 부분으로 분석하고 기하학과 색채로부터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카르납의 『아우프바우』⁶⁾의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색채와 기하학의 자리에 카르납과 비엔나 서클의 프로토콜 문장⁷⁾이 자리한 것이다.⁸⁾

4) 실제로 당시 비엔나 서클은 모임 자체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여긴 노이랏트를 축으로 하는 서클 좌파와 온건한 정치적 입장을 지녔던 술릭을 중심으로 하는 서클 우파로 나뉘어 있었다.

5) Marx W. Wartofsky, "Positivism and Politics: The Vienna Circle as a Social Movement" in *The Legacy of the Vienna Circle*, Garland, 1996, 55~56쪽.

6) Rudolf, Carnap, *Der Logische Aufbau der Welt*, Felix Meiner Verlag, 1928. '세계의 논리적 구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카르납의 주저로 흔히 『아우프바우』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구조'라는 말은 어떤지 구성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바우하우스'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

또한 모든 장식을 제거하고 “기능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모더니즘 건축의 모토를 견지했던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은 디자인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가졌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거주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들의 건축 원리와 실천의 양 측면 모두는 비엔나 서클 학자들의 관심과 공유되는 것이었다. 건축물의 장식보다는 뼈대에 관심을 지닌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의 생각은 분명 카르납의 구조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차원의 주택 시설 프로젝트에 일차적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가졌던 노이라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바우하우스에 요청하여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⁹⁾

이처럼 비엔나 서클은 수학자와 물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 세계관을 기초로 과학주의에 경도된 주장을 했지만, 그들이 단순히 과학만을 알고 다른 분야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다른 분야를 무시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과학이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공부했다. 각자의 학문적 배경은 달랐으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커피하우스 토론 모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세기의 사상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이른 것은 자유학예적 소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¹⁰⁾

7) Protocol sentences = 순수 경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뜻함.

8) Peter Galison, “Aufbau/Bauhaus: Logical Positivism and Architectural Modernism” in *Critical Inquiry* 16, ed. by Frances Ferguson and Bill Brown, University of Chicago, 1990, 738쪽.

9) 이러한 유사성을 염두에 둔다면, 비엔나 서클이 나치의 위협의 결과로 해체된 것이나 바우하우스가 나치에 의해 폐쇄된 것의 공통점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0) 지식인들의 토론 모임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게 된 또 하나의 사례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1871년부터 1879년까지 이어진 메타피지컬 클럽(The Metaphysical Club)을 들 수 있다. 철학자 찰스 퍼스(Charles S. Peirce), 심리학자/철학자 제임스(William James), 철학자/수학자 촌시 라이트(Chauncey Wright), 변호사 니콜라스 그린(Nicholas Green), 후에 연방 대법관이 된 올리버 웬달 홈즈 주니어(Oliver Wendall Holmes Jr.) 등이 주도한 이 클럽은 남북전쟁 후 미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사상이 된 프래그머티즘의 산실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IV.

나는 이제 케임브리지 사도들과 비엔나 서클 둘 다 토론 모임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 토론의 토대가 각자의 전공과 관계없이 자유학예(liberal arts)적 전통과 소양에 기초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서양 중세에서 대학이 생긴 이래 아주 오랫동안 리버럴아츠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의 전부였다. 원래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노예로부터 구분되는 자유인을 위한 교육을 뜻했던 이 용어는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 이른바 3학 4과라는 7 자유학예로 체계화되었다.

문법, 논리학,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3학(Trivium)과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을 뜻하는 4과(Quadrivium)는 모두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특히 3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든 그 과목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 배우는 것이다.¹¹⁾ 문법은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기호를 만들어내고 조합하는 기술이고, 논리학은 그 자체로 사고의 기술이며, 수사학은 사고를 소통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사고의 기초인 3학을 공부한 뒤, 4과에서는 수와 추상적 사고에 대한 심화 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즉, 산수는 수 자체에 대한 공부이고, 기하는 공간에서의 수를 다루며, 음악은 시간에서의 수, 그리고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수를 다룬다.

물론 초기 유럽의 대학은 교회에서 세우거나 교회에 속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을 배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일례로 논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독교 교리 해석에 논리적 일관성과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다룬 논의에 대해서는 루이스 매넨드, 『메타피지컬 클럽』, 정주연 역, 민음사, 2006을 참조.

11) 중세 커리큘럼의 현대적 중요성, 특히 3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글로 걸출한 추리문학 작가이자 기독교학자였던 Dorothy L. Sayers, *The Lost Tools of Learning*, Glh Publishing, 1947을 볼 것. 1947년 옥스퍼드 대학 강연록인 이 글에서 그는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이든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당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고, 천문학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부활절 등 교리적으로 중요한 날짜를 계산하는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이유가 있다 해도 3학 4과의 내용은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지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면서 리버럴아츠라고 하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분화된 각각의 학문 분야를 깊이 공부하게 되면서 전공의 벽이 생겨났지만, 원래 이들 학문의 뿌리는 전통적인 자유학예인 3학 4과에 있으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기술과 추상적 사고의 함양이라는 배경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은 물론 실용적인 것의 추구가 더 대우받는 세상이지만 사실 그러한 실용성은 리버럴아츠적 요소가 뒷받침 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러한 바탕을 결여할 때, 실용성은 공허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천박한 이익의 추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철학을 대표하는 이름 프래그머티즘(pragmatism)도 사실은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질 때만 작용가치(working value) 또는 현금가치(cash value)를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교통법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다. 신호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복잡한 또 다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실용적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래그머티즘은 흔히 번역되듯이 실용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¹²⁾ 프래그머티즘에 있어서 실용과 원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실용을 떠받치는 원칙 없이는 실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역설적으로 프래그머티즘은 원칙주의의 한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선, 『실용주의 - 살림지식총서 324』, 살림, 2008, 이유선, 『리처드 로티』, 이룸, 2003 제1장을 볼 것.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문을 추구하는 오늘날 대학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반문해 본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실용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대학 안팎에서 대세가 실용적으로 흐르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다. 문제는 원칙 없는 실용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실용만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학문의 바탕을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케임브리지 사도들이 그랬듯이 또 비엔나 서클이 그랬듯이, 전공과 관계없이 그들이 힘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탄탄한 자유학예적 관심과 역량이었다. 피상적으로 그러한 역량은 쓸모없거나 실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도 그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문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920년대 이래 세계 영화 시장을 지배해온 할리우드가 지닌 힘의 원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할리우드 산업의 종사자들, 즉 영화감독, 프로듀서, 작가, 배우들은 영화를 찍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할리우드에는 파티 애니멀 뿐 아니라 책벌레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년 제작되는 할리우드 영화의 1/3 이상이 원작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라는 것이 입증해 준다. 그뿐이 아니다. 스티븐 스피얼버그의 영화 “E. T.”(1982)에서 E. T.가 소년과 손가락을 맞대는 유명한 장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천지창조”에서 따왔으며,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013)은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바탕으로 한 기발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오래된 그림을 감상하고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문학작품을 읽는 것과 같은 자유학예적 관심과 역량은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할리우드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¹³⁾

13)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달리 일본의 리버털아츠 교육의 축소 내지는 부재로 인한 지적망국론을 제기한 다치바나 다카시의 시각은 참고할 만하다. 다치바나 다카시,

V.

이제 미국의 명문 리버럴아츠칼리지인 스와츠모어 대학의 한 미술사 교수가 인용한 우화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솝 우화의 한 에피소드다.

배고픈 개 한 마리가 커다란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을 물고 가던 개는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 큰 뼈를 물고 있는 다른 개가 다리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욕심이 생긴 그 개는 다리 아래의 개를 보고 짓기 시작했고, 물고 있던 뼈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솝 우화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고, 교훈이 있다. 또한 우화에는 언제나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 더 큰 뼈를 노렸던 개처럼 그림자를 잡으려 든다면 실체는 놓치게 된다. 문제는 이야기와 교훈 중에 어떤 것이 실체고 어떤 것이 그림자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막 이솝 우화를 읽기 시작한 어린이가 아니라면 우화에는 이야기 이상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야기는 교훈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장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그림자고 교훈이 실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훈 자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교훈에서 이야기를 찾을 수 없다. 반면 이야기는 교훈을 담고 있다. 우화는 교훈을 함축하고 있지만, 교훈 그 자체가 씌어있지는 않다. 그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다. 우화는 교훈을 설명하지 않고서도 완결적일 수 있지만, 이야기 없는 우화는 있을 수 없다. 바로 그 점에서 교훈은 그림자이고 이야기가 실체인 것이다. 교훈들만을 따로 떼어놓은 것을 책으로 만들어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딱딱하고 건조한 교훈들의 나열일 뿐이다.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잘 씌어진 이야기를 읽을 때이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자극하는 것도 교훈이 아니라 이야기다.¹⁴⁾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정환 역, 청어람미디어, 2002.

14) 이솝 우화 및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서 인용한 것이다. T. Kaori Kitao, "The Usefulness of Uselessness", Keynote Address, The 1999 Institute for

그렇다면 위 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리버럴아츠를 공부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것이다. 리버럴아츠 교육은 세상에 쓸모 있는 무엇을 바로 가져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마치 우화의 이야기를 쓰거나 말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파생되는 역량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 앞에 열매를 바로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어떠한 열매라도 열릴 수 있는 뿌리와 줄기를 자라게 해준다. 우화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는 눈앞의 열매를 실체라고 쉽게 단정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뿌리와 줄기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열매만을 좇는 것은 그림자를 좇는 일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솝의 배고프고 억울해하는 개가 아니라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학예적 소양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학예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학예는 그것의 원래 의미가 자유인을 위한 학문(liberal arts)이었듯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학문 liberating arts이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배움(大學)의 뜻을 다시 새롭게(又日新)하는 것이다. 모두가 박사를 추구했으나 전공의 벽에 갇혀 협사가 되고 말았다면, 또한 모두가 실용을 추구하느라 원칙을 잊고 말았다면, 결국 물에 비쳐 더 크게 보인 뼈를 노린 개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리버럴아츠가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열매를 바로 가져다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 일신하여 리버럴아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공허한 외형만이 아닌 대학의 내실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큰 배움의 장에 들어온 모두를 진정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the Academic Advancement of Youth's Odyssey at Swarthmore College, 27 March 1999. (<http://www.swarthmore.edu/Humanities/tkitao1/useless.html>)

참고문헌

- 이유선, 『리처드 로티』, 이룸, 2003.
- 이유선, 『실용주의』, 살림, 2008.
- 다치바나 다카시,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데』, 이정환 역, 청어람미디어, 2002.
- 루이스 매넨드, 『메타 피지컬클럽』, 정주연 역, 민음사, 2006.
- Carnap, Rudolf. *Der Logische Aufbau der Welt*, Felix Meiner Verlag, 1928.
- Fleming, Donald and Bailyn, Beranrd, *The Intellectual Migration: Europe and America, 1930~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Galison, Peter. “Aufbau/Bauhaus: Logical Positivim and Architectural Modernism”, *Critical Inquiry* 16, 1990.
- Kitao, T. Kaori, “The Usefulness of Uselessness, Keynote Address”, The 1999 Institute for the Academic Advancement of Youth’s Odyssey at Swarthmore College, 27 March 1999. <http://www.swarthmore.edu/Humanities/tkitao1/useless.html>
- Neurath, Otto, *Empiricism and Sociology*, Reidel, 1973.
- Sayers, Dorothy, “The Lost Tools of Learning”, *The Hibbert Journal* Vol. 46, 1947.
- Wartofsky, Marx W. “Positivism and Politics: The Vienna Circle as a Social Movement”, in *The Legacy of the Vienna Circle*, Garland, 1996.